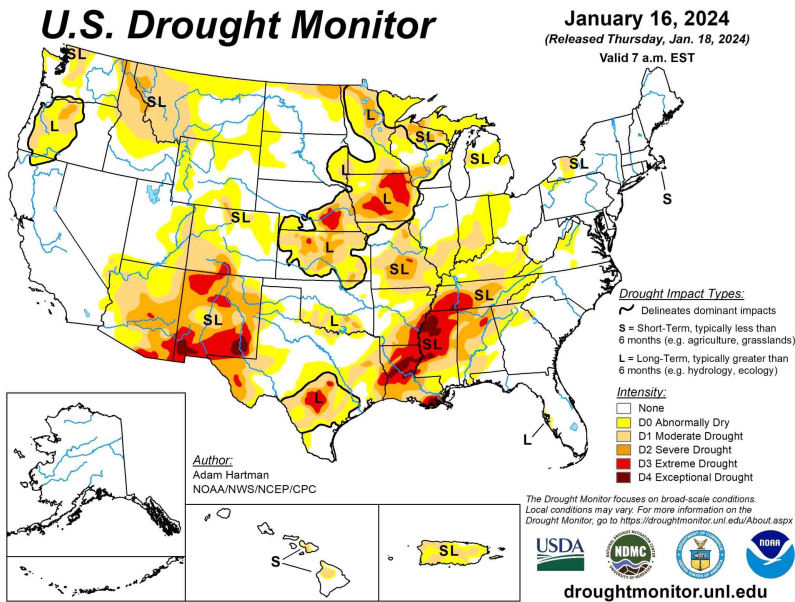




1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1, No. 4)

□ 미국 기후 현황(1/14-1/20)

지난 주에 있었던 두 차례의 큰 겨울 폭풍 이후로 전국 대부분에서는 약한 강수량만 내렸다. 사실, 미국 북중부에서는, 남부 평원과 남서부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그러나 중앙 평원, 옥수수 지대 서부 그리고 미국 동부 1/3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에는 약간의 비가 내렸다. 쌓이는 눈이 대서양 중부 주들은 물론이고 남쪽으로 멀리 미시시피 삼각주 북부와 테네시 계곡까지 내렸다. 한편, 서부에서는 찬 공기가 감퇴하면서 강수가 증가했다. 가장 많은 강수는 북캘리포니아와 태평양 북서부에 내렸으나 서부 해안에서 로키산맥 북부와 중부까지의 대부분의 지역들에는 약간의 비나 눈이 또는 둘 다 내렸다. 찬 공기가 북서부를 떠나는 속도가 더 느려지면서 결과적으로 습기가 들어옴에 따라 영하의 비가 내리는 등 다소 겨울철 같은 날씨가 되었다. 가축 생산자들은, 특히 연속되는 눈보라에 혹한의 날씨가 따라오는 지역들에서는, 계속해서 어려운 조건들과 싸웠다. 주 대부분의 기간 동안 춥고 바람이 부는 날씨가 지속되고 얼마의 눈이 추가로 내려서 중부 평원에서부터 중서부 일부까지는 시골 여행이 여전히 어려웠다. 평원, 중서부, 북서부, 중남부 지역 전체는 주간 기온이 평년보다 평균 10-25° F 낮았다. 12월의 기록적인 따뜻함에 이어 혹독하고 눈 내리는 날씨가 이어져 가축의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기온이 감귤류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낮지는 않았지만, 결빙이, 주로 1월 16-17일에, 덩 사우스 텍사스에 잠시 영향을 미쳤다. 루이지애나 남부에서 극심한 결빙이 발생했는데, 그곳은 이미 대부분의 사탕수수 작물이 수확된 상태였다. 플로리다의 핵심 겨울 농업 지역들에서는 기온이 32° F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플로리다 남부 일부는, 캘리포니아, 그레이트베이슨, 남서부에 있는 여러 지점들과 함께, 주간 수치가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최소 5° F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

자료 없음

□ 세계 기후 현황(1/14-1/20)

■ 유럽:

유럽 중부와 북부의 춥고 눈이 내리는 날씨가 대륙 남부 지역의 따뜻하고 습한 조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번 계절에서 첫 번째로 내린 폭설 (220 cm)이 프랑스 북부, 독일, 폴란드, 발트해 국가들에서 기록되었다. 야간 저온이 동사 (-17°C 이하) 임계점보다 높이 유지되기는 했지만, 유럽 북서부에서 그 눈덩이는 휴면 중인 겨울 작물들에게 평년보다 추운 기온 (평년보다 최대 7°C 낮음)에 맞서 좋은 단열을 제공했다. 더 남쪽으로 이베리아반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이탈리아와 발칸반도까지 비정상적인 따뜻함 (평년보다 $2-6^{\circ}\text{C}$)이 만연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는 광범위한 폭우 (25-215 mm)가 내렸고 한편 이탈리아에는 다소 가벼운 소나기 (10-50 mm)가 내렸다. 더 동쪽으로 발칸반도 서부와 남부에서부터 그리스 북부와 중부까지는 주말에 급격히 추워진 날씨 때문에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 구소련(서부):

자료 없음

■ 동아시아:

자료 없음

■ 호주:

호주 동부 전역에 걸쳐서 광범위한 소나기 (일반적으로 10-50 mm)가 지속되어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작물의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 추가적으로 내린 그 비는 동부 전체적으로 토양 수분을 평균 내지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추가 관개의 필요성을 줄였다. 봄 건조가 몇몇 여름작물들의 파종 면적을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때 이후로 습한 날씨 덕분에 작물의 전망들이 상당히 양호해졌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의 평균 기온은 평년의 2°C 이내였고 뉴사우스웨일즈 중부와 남부 그리고 빅토리아 북부는 평년보다 $3-5^{\circ}\text{C}$ 낮았다.



■ 아르헨티나:

폭우가 내려서 아르헨티나 중부의 다수확 농업 지역들에서는 옥수수과 대두에 필요한 수분이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총 25-100 mm의 강우가 코르도바 남부와 중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파라과이와 브라질의 남부까지 확산되었다. 그 유익한 강우가 내린 지역들 중에는 지난주에 건조했던 파라나 계곡 하류에 있는 엔트레리오스와 인근 지점들이 포함되었다. 대체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그 습한 지역의 남쪽 (라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남쪽 재배 지역들)과 북서쪽 (코르도바 북부에서부터 포모사까지)으로 만연하면서 최근의 유익한 강우 기간 이후 여름작물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남부와 북동부에서의 평년보다 2° C 낮은 수준에서부터 먼 북쪽에서의 평년보다 3° C 높은 수준의 온도 범위를 보여 주었고 낮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 초중반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1월 18일 현재 옥수수와 대두가 각각 92 및 98 퍼센트 파종되었다; 면화는 작년의 86 퍼센트 대비 93 퍼센트 파종되었다.

■ 브라질:

중앙 및 북동부 농업 지역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날씨가 만연하면서 미성숙한 대두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고 빠른 발달 속도를 촉진했다. 마투그로수과 마투그로수두술에서부터 동쪽으로, 많은 지점들이 25에서 50 mm 이상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비가 고르지 않게 내렸다. 그 지역 전체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높았고 최고 기온은 며칠 동안 섭씨 30도 중후반에 이르렀다. 마투그로수 정부에 따르면 1월 19일 현재 대두는 작년 7퍼센트 대비 13 퍼센트 수확되었다;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4 퍼센트와 56 퍼센트 파종되었는데 이는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보다 앞선 것이다. 더 남쪽에서도 비슷한 조건들이 기록되어 가장 심한 강우 (25-100 mm)가 파라나에서부터 남쪽으로 그리고 상파울루와 미나스제리아스 남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가장 따뜻한 지점들에서는 기온이 종종 30도 중후반에 도달하기도 하여 초작 작물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다. 정부 보고들에 따르면 파라나의 초작 옥수수와 대두는 1월 15일 현재 각각 5 퍼센트와 7 퍼센트 수확되었다; 2기작 옥수수는 4 퍼센트 파종되었다. 히우그란지두술에서는 옥수수가 1월 18일 현재 96 퍼센트 파종되었고 작물의 약 60 퍼센트가 개화 내지 성숙 중이었으며 20 퍼센트가 수확되었다; 대두는 다 파종되었으나 개화에 도달한 비율은 20 퍼센트에 불과했다.